

갈등과 고통 그리고 교인



라운아띠 8기 캄보디아팀 12월호

목차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축제, 그리고 다일공동체내의 커플탄생소식까지 기쁜일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복잡한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들로 인해 아띠에게는 가장 힘든 달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민이 많았던 달이기도 하다.

1. 아띠 활동 총정리	p. 3
2. 썬라아띠	p.12
3. 도서관프로그램 그리고 백일장 ...	p.17
4. 크리스마스 파티	p.19
5. 프놈끄라움 소개	p.21
6.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28
7. 개인에세이	p.31
8. 사진전	p.35



아띠들의 활동 총정리

아띠들은 4개월 동안 다일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다. 이제까지 활동을 하며 느낀 각자의 감정들을 적어본다.

조민기 단원의 생각

밥퍼

4개월 동안 밥퍼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청소하고 설거지 할 때 아이들이 밥 먹으며 마구 흘리고 어지르고 자기가 먹은 식판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뭐하고 있지 아이들은 퍼주는 밥 한 끼에 감사함을 느끼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지치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밥퍼를 통해 아이들과 눈 마주치며 웃어주고 하면서 밥퍼가 그냥 아이들에게 밥만 퍼주는 활동만이 아닌 밥을 통해 아이들과 많은 소통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빵퍼

처음에는 약간 의무적으로 오후 남은 시간에 가서 빵퍼를 도우다가 나중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빵퍼에 갔다. 빵퍼 일을 도우며 빵퍼 스텝들과 웃고 떠드는 것들이 좋았다.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





쥬크니어, 프놈끄라움 유치원

유치원 활동에는 정말 지치고 힘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너무 어려웠다. 유치원 현지 선생님 도움으로 활동이 많이 나아졌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활동이었다.



프놈끄라움중학교 한국어수업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나 스스로가 많이 교육 준비에 부족함이 많았다. 내가 매일 쓰는 언어이니 가르치는 것도 잘 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마음을 가졌었다. 팀원의 도움도 받고 새로운 교재도 보면서 많이 개선했지만 처음에 많은 준비를 하지 못 하였던 것들이 아쉽다. 하지만 반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고 즐겁게 수업하였다.

스텝 한국어

빵퍼 스텝들과 친해지는 수업이 되어 좋았지만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 준비에 아쉬움이 남는다. 준비했던 교육보다 높은 한국어 수준과 스텝들 수준 차이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였다.



크메르어 수업

수업을 책 위주로 하다보니 많은 일상 생활 용어를 배우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 질문 시간이 많아서 부족했던 어휘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 같다. 같이 일하는 크마에 스텝들이 수업을 진행해 서슴없이 즐겁게 수업하는 장점이 있었다.

한결 단원의 생각

밥퍼

매일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고기요리를 만들고 과일을 깎는 일은 정말.....어렵고도 힘든 일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 힘들 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지?' 원망하기도 했지만, 센터에 와 밥을 먹는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지 보면 내가 했던 원망이 부끄러워졌다. 밥하나에 반찬하나.... 그들에게는 성대한 식사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밥상이었다. 맛있는 밥, 고기반찬, 계란말이, 과일을 주는 밥퍼에와 밥을 먹고가는건 집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만찬이기에 캄보디아를 떠날 때 까지 힘들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해야되는 나의 오전 일상이다.

빵퍼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빵을 만들고 포장하여 밥퍼가 너무 멀어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그 마을로 들어가 빵을 나눠주는 다일공동체의 빵퍼사업. 집에서 밥 먹을 형편이 안되고 다일공동체의 밥퍼에 와 밥을 먹자니 너무 오랜 시간을 걸어야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주는 빵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였다. 이 낯설고 투박한 땅에서 빵 하나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내 가슴을 꼭 차게 만든다.





쫑크니어, 프놈그라움유치원

10월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이 수업내용을 어려워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였다. 한 달간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우리의 '실수'였음을 깨닫고 무조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준비하여 하다 보니 정말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준다. 미술, 음악, 체육수업등 어떤 것을 하던간에 즐겁게 따라와주는 아이들을 보며, 10월 우리의 행동이 바로 '어른들의 실수' 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어릴 때 난 커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어른이 되어지하고 다짐했지만, 정작 내가 어른이 되고나니 지난일은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내 입장에서 편한대로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어른의 오만'을 어른이 되어 똑같이 되풀이하는 나를 보며, 조금더 내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프놈그라움중학교 한국어수업

솔직히 말해 프놈그라움중학교에가서 하는 한국어수업은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던 활동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 '우리가 왜 여기에 올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인 내가 먼저 바뀌면 학생도 바뀌지 않을까란 생각에 아이들에게 공책을 나눠주고 한글의 자음, 모음을 아이들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크마에어로 적어가니 수업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만큼 수업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견주어 선생님의 가르치고자하는 열정과 노력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텝한국어

다일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스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수업을 하며 정말 친해질 수 있었다. 일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마어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며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크메르어수업

라운아띠활동을 하는데 있어 '크메르어' 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활동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크메르어를 배우기위해 노력했는데, 다일공동체 스텝인 파리, 분생, 펄라의 크메르어수업을 일주일에 3번 들으며 급속도로 실력이 늘어갔다. 한국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던 영어가 아닌, 너무나도 낯설었던 크메르어를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 친숙하고 재밌게 배운 거 같아 정말 고맙다.



한글학교

처음에는 조그맣고 귀여운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마냥 재밌고 즐거울줄 알았다. 뭔가 '아이들' 하면 생기발랄하고 귀여울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 이라는 위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센터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우선 언어라는 장벽으로 인해 힘들었는데, 한글학교 아이들은 언어의 걸림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리다보니 더더욱 산만하고 집중을 잘하지 못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사탕을 걸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주겠다고 했더니, 귀신같이 조용해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노는 학생으로 변하였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칭찬에도 약해 조금만 칭찬해주면 월등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란 참 징글징글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사랑스런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 단원의 생각

밥퍼

최근 봉사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밥퍼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 시간동안 아이들 집을 찾아가거나, 이야기 할 시간이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봉사자들에게 이것 저것 설명하느라 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빵퍼

처음 한 달은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쌀라아디가 시작되고 난 뒤 빵퍼에 자주 가지 않게 되어 3시에 빵 포장 할 때 웬지 스텝들에게 미안했다

쥬크니어, 프놈끄라움 유치원

유치원 수업은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 반과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라 그런지 수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런데, 쥬크니어 유치원이 수상 유치원이라 육로와 수로를 이루어 주는 다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다리가 없어져서 수업을 하러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 저 아이들이 예전만큼은 오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프놈끄라움중학교 한국어수업

프놈끄라움 중학교 수업은 이전과 같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단어 위주의 수업을 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사탕도 나누어주며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스텝한국어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스텝한국어 인데, 꾸준히 잘 진행되지 않아 현재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다.

아론의 스텝한국어 수업을 도서관에서 해왔는데 봉사자가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에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도서관 스텝은 아론은 봉사자들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고 빵퍼스텝 모이, 켄니, 펄리는 많은 봉사자들이 도와주어 일이 빨리 끝나지만 나는 일이 계속 끝나지 않아 서로 시간을 맞추고 싶어도 적절한 시간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예전부터 계속 제일 규칙적으로 수업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 한 달만큼은 열심히 진행하고자 서로 약속했는데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

크메르어 수업

시간이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에 참여 할 수 없는 날도 더러 있었지만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글학교

작은 인원이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거운 고민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다

고용석 단원의 생각

밥퍼

캄보디아 다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인 밥퍼. 하지만 밥퍼만 집중적으로 하는 스텝이 2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교육활동 등으로 일을 도와주다가 중간에 가야할 때가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무슨 일이 없을때에는 꼭 가서 도와주곤한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일할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든다. 밥퍼에 오는 아이들마다 집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집의 형편이 괜찮은데 이런 아이들에게까지 밥을 주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다른 아이들을 보면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이런 정말 밥퍼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밥'이란 하나의 씨앗으로 모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어렵다.

빵퍼

시간이 안날때가 많아 자주 도와주진 못하지만, 빵퍼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밥퍼가 센터근처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면 빵퍼는 센터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는 일이다.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아이들의 형편이 안좋은 곳이 많아서 어쩌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쭉크니어, 프놈끄라움 유치원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있고 잘 되는 활동이다. 초반에는 애를 먹었지만 갈수록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더 재밌고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쭉크니어와 프놈끄라움 유치원의 아이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두 곳다 너무 좋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착하게 보여서 매력있는 활동인 것 같다.

프놈끄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

나에게는 힘이 드는 활동 중 하나이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밖에 못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따라오는지 알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쉽다. 처음부터 교재준비를 미리 하고, 게임이나 퀴즈 등을 많이 준비했었다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긴다.

스텝한국어

초반에는 정말 잘 났었다. 그림을 통해 쉽게 진행하니까 능률도 좋은 듯 해보였다. 하지만 기초가 없이 그냥 단어 외우는 식으로 진행하니까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짧은 기간이라도 매일수업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글자부터 마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글학교

정말 말괄량이 애들이다. 어떤 날은 정말 말을 잘 듣다가도 어떤날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미운 정이 들었다고 해야할까? 한국어가면 많이 생각날 것 같다. 이제 내가 가르치는 6학년애들은 곧 한글학교를 졸업할텐데, 졸업한 후에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쌀라아띠

쌀라아띠는 아띠들의 학교라는 뜻으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수업이다.
캄팀의 아띠들이 가장 애정을 쏟고 열심히 해나가는 활동중에 하나이다.

축구반 - 조민기단원

쌀라아띠 마술을 계획하다가 많은 고심 끝에 축구로 바꾸고
해나가면서 공도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끼리 싸워서 수업 중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훈련을 넣으면서 지루해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수업하러 가자는 아이들을 보며 잘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탁구부
선생님이 오셔서 매일 아침부터 퇴근 할 때 까지 2층 체육관을
쓰신다며 축구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통보하셔서 큰 위기가 찾아
왔다. 센터 마당에서 하기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막막하기 만 하다. 거기다 축구반 아이들을 탁구하자며 탁구 선생님이
자꾸 권유까지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 더워도 괜찮으니
마당에서 하자는 아이들 오늘은 수업 어디서 하나고 묻는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낸다. 쌀라아띠를 통해 아이들에게 단순한 놀이 축구 이상을 같이
하고 싶다.



π π

한국어반 - 한결단원



10월부터 쌀라아띠를 시작하여 약 한달간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익히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연구했던 달인거 같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복사해서 나눠주다가 절대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외우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예쁜 색지에 자음과 모음을 쓰고 소리나는 대로 그 밑에 크마에어로 써서 아띠교실 벽면에 크게 붙이게 되었다. 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캄보디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앵그리버드 그림도 같이 붙이며 조금 더 흥미롭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읽고 노트에 적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2개의 반이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이 생겨 각자의 사진을 찍어 수업에 참여할때마다 스티커를 주게 되었다.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물을 주기로 하고 매번 수업 시작전에 출석을 불렀더니 아이들의 출석률이 거의 100%가 되었다.

하루하루 수업을 진행하며 어려웠던 부분을 체크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도 나날이 늘어가고, 내가 무조건 가르친다는 마음가짐보다 함께 어울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서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점점 아이들과 내가 가까워지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쌀라아띠, 한국어로 아띠들의 학교라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이들의 학교' 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술반 - 고용석단원



미술반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5살부터 16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오면서 난이도 조절과 통제가 힘들었다. 그 와중에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은 미술반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애들끼리 수업중에 싸우기도 한다.

어떤 날은 한 애가 다른애에게 미술반 오지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캄보디아어로 빠르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애 어머니까지 교실에 찾아와 왜 오지말라고 하냐고 화를 내기도 해서 당황스러웠다. 캄보디아어를 더욱 잘 했으면 이런 사태를 미연해 방지할수도 있었을텐데 그게 잘 안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좀 더 캄보디아어를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과, 좀 더 아이들 말에 귀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십자수반 - 박지훈단원



최근 쌀라아띠의 학생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까닭에 하루에 4시간 넘는 수업에 정신 못차릴 때도 더러 있지만 처음 쌀라아띠를 시작했을때만 해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지? 하는 생각에 조금함이 앞섰는데 수업이 거의 1: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5명의 인원을 정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최근 크리스마스 때 십자수 작품을 한 번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아이들까지 10명 가까이 십자수를 배우고 싶다하여 8명이 한 반을 이루어 수업을 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아이들을 정리하고, 서로 맞는 시간을 조정하여 지금은 오전반 1반, 오후반 2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 학생은 한 15명 정도로 늘어났다.

사실 새롭게 배우는 아이들은 2주 정도밖에 배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내 앞에 자꾸 나타나 귀엽게 위협하기에 신입생으로 받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십자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기 보다 그냥 나랑 놀기위해.....그냥 수업이 온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하지만, 쌀라아띠를 계속 진행하며 단순히 아이들에게 내가 선생님이기 보다는 복덕방주인이고 싶었다. 그냥 수업시간에 십자수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고 싶었기에 지금의 3반 모두 나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의 사이도 정말 좋기에 몸과 정신이 힘들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수업을 잘 진행해 나가야 겠다라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이다.

<살라아띠 십자수반의 소풍>



한번 쯤 같이 놀러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우리 한 번 놀러갈까?’ 라고 말끝을 흐렸는데 이야기 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우리 언제가? 오늘? 내일?’ 이라며 기쁨의 춤과 노래를 보여 주기어 아... 일정을 좀 정하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난 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았는데, 십자수반이 놀러간다는 소문이 퍼져 갑자기 십자수반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난감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시엠립 시내로 나섰다.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아서 무섭다며 내 손을 잡던 네악싸, 쓰리, 처음으로 스케이트장에 온다며 가장 신나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결국 옷이 찢어져 울상이 된 쓰리, 3번째 스케이트 장에 와서 인지 가장 멋지게 스케이트를 잘 타서 아이들의 부러움을 산 쓰라이네악!

맛있는 뷔페집에서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난 뒤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100번 넘게 들었다.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백일장



이번 달에는 '도서관' 이라는 취지에 알맞게 책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였다. 제일
먼저한 활동은 '이야기 만들기' 였다. 쓰지 않는 동화책에 그림을 따와서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스케치북에 마음껏 붙이면서 붙인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창작하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창작하면서 동화에 관심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번째 활동은 '동화 읽어주기' 이다. 동화영상을 크메르어로 번역하여 영상과 동시에
캄보디아 스텝이동화를 읽어주는 식이다. 이러면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 글자에 더 관심있어 하여 글자공부에 더욱
흥미를 갖게하는 의도였다.



제1회 프놈프라움 쑼크니어마을 백일장



2013. 1. 16

KB다일도서관

제1회 프놈프라움 쑼크니어 마을 글쓰기대회

2013.1.16(수)PM4:30
KB다일도서관



주최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프라움중학교, 쑼크니어중학교 주관 : 캄보디아 후원 : 다일공동체, KB국민은행

다일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상 : 프놈프라움중학교, 쑼크니어중학교
장차 : 2013. 0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내용 : 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2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3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4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5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7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8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1.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2.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3.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4.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5.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6.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7.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8.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99.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00. 1. 16, 목요일 오후 4시 30분

ការប្រកួតប្រជែងសរសេរអត្ថបទប្រឆាំង នឹងជំងឺអេដស៍

ឈ្មោះ
ឈ្មោះ
ឈ្មោះ
ឈ្មោះ
ឈ្មោះ

ថ្ងៃទី ខែ ឆ្នាំ
ឈ្មោះ

ទី 2012 - 1 គូ

상 장

1등

프놈프라움중학교
7학년 A반
이름 스테이션

위 학생은 제 1회 프놈프라움,
쑼크니어마을 백일장에서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드립니다.

2013년 1월 28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이전것 들은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도 필요했다. 그래서 기획한것이 백일장이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잘 쓴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는 식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백일장과 다름이 없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조금 특별하다. 여기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못할 뿐더러 글을 쓰는 대회는 정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짓기를 한 적어 없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백일장에 필요한 책 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자연스럽게 읽게 될 것 같다. 원래 백일장은 12월 말에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계획했지만 점점 일일 커지면서 프놈프라움 중학교와 쑼크니어 중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초빙하는 커다란 행사가 되버렸다. 그 덕분에 1월 중순으로 미루지게 되었다. 아띠들은 백일장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

방과 후 수업 학생들, 캄보디아 스텝들을 비롯하여 약 총 180명 정도를 초대하여 12월 25일 모두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 12월 25일이 공휴일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해서 하루 종일 놀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고보니 캄보디아는 12월 25일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땡퍼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스텝들이 3시간 동안 아이들 맛을 준비를 하였는데, 특히 용석단원은 빛나는 요리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5시에 파티가 시작이었지만 꽃단장한 아이들이 30분 전에 와서 '우리 언제 들어가 빨리 놀자!' 라며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기에 아이들 진정시키랴, 안 온 아이들 찾으러 다니랴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5시가 되자마자 땡퍼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을 입장시키고 자리를 정해 앉히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른 뒤 밥을 먹고 파티의 하이라이트 민기 단원과
현지스텝 분생이 mc를 맡아 몇 가지 게임을 진행하였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 게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게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1점에
크고 작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마지막 1등 팀은 김형길 원장님의 의자까지 박살낼
정도의 열정적인 댄스로 인해 4조에게 돌아갔다. (진짜
엄청 열정적 이셨음)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까지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파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모든 스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

아마, 아띠들에게 있어 가장 많은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크리스마스로 기억 될 것이다.



프놈끄라움 마을 소개 마지막편



→ 길이 파헤쳐진 프놈끄라움 마을



→ 쭉크니어 길목에 설치되는 가로등

1. 길 공사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길 확장공사로 인해 프놈끄라움마을의 몇몇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톤레삽호수 선착장 앞에 건설되고 있는 '리조트' 로 인해 모든 길에 가로등이 설치되고, 관광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모든 집들이 3m~4m 정도 뒤로 밀어야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선 프놈끄라움의 모든 집들에게 길 넓히는 공사를 할 테니 언제까지 집을 뒤로 밀으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뒤로 밀기위해선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기에 돈이 없는 가정은 집을 뒤로 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선 기한이 지나자마자 길 넓히는 공사를 시작해 미처 집을 뒤로 밀지 못한 곳은 그대로 집을 부수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무참히 부서져버린 집의 반쪽



→ 집이 다 무너져 내린 빵퍼 스텝 샤룬의 집



→ 부서진 바닥 자재들



→ 뽑힌 다일도서관 간판과 포크레인

그로 인해 많은 집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KB다일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간짜냐'의 집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고, 다일공동체 빵퍼에서 일하고 있는 '샤룬'의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측에선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 부타네 집 풍경



→ 부타네 집 안 거실

2. 홈스테이 - 한결단원

홈스테이 가정: 부타, 로사

홈스테이 기간: 2012년 12월 22일 ~ 24일 2박 3일

내가 홈스테이를하기로 한 가정은 쌀라아띠 한국어교실에서 나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부타와 로사이다. 두 아이 모두 4개월동안 한국어수업을 통해 굉장히 친해져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탁했고, 둘 다 정말 기쁘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주었다.

첫째 날은 부타네집, 둘째 날은 로사네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부타네 집은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집도 굉장히 작고 허름한 집이었었는데 2012년 3월, 다일공동체 집지어주는 사업을 통해 좀 더 크고 튼튼한 집을 받게 되어 형편이 조금은 나아진 상태였다. 그에 반해 로사네 집은 큰 길가 바로 옆에 위치한 매우 튼튼해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으며 아버님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어가이드를 하시는 분이라 프놈끄라움마을에서는 잘사는 편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2박 3일간 프놈끄라움마을의 어려운 형편에 속해있는 99%의 아이들중 한명의 집과, 이 곳에서 부자라 불리는 나머지 1% 아이의 집에서 지내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홈스테이 가정을 확정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어 프놈끄라움마을의 사정이



→ 직접 키운 사탕수수를 자르는 부타의 모습



→ 부타의 방에서 내다본 창문밖 풍경

어떠한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부타네 집은 전형적인 프놈끄라움마을의 '집' 이었다. 돼지, 닭, 강아지들이 많은, 마치 동물농장을 연상시키는 곳이었으며 부타의 부모님이 집 뒤에 사탕수수와 파파야나무를 직접 재배하시고 계셨다.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키우고 있어 내가 홈스테이를 하러 갔을 때에도 간식으로 사탕수수와 파파야를 가져와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그 곳에서 샤워, 빨래, 설거지 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다.

로사네 집은 땅값이 비싼 큰길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물들을 따로 키우지 않고 아버님의 월급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프놈끄라움마을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칸막이가 쳐진 샤워실 겸 화장실이 있었으며 부엌도 실내에 따로 있는, 말 그대로 좀 사는 집이었다. 이 두 집안의 가정형편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의 '교육열' 이었다. 부타의 경우 학교, 영어, 한국어공부 등 정말 모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제대로 배우지못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부타네 부모님은 부타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계셨다. 특히 나에게 부타가 한국가서 공부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실 정도로 자식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고, 또 자식만은 빈곤을 되물림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셨다. 그에 반해 로사의 경우 어머니가 원래 가정형편이 좋으신 분이셨고 아버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하여 지금은 영어로 하는 관광가이드를 하게되어 실제로 빈곤에서 벗어난 프놈끄라움마을에선



→ 부타네 가족들과 함께



→ 로사네 가족들과 함께

성공한 집이었다. 아버님이 노력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자신은 다른 프놈프라움의 집들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게 아니라 적게 낳고 잘가르쳐 자신처럼 가이드를 시키고 싶다고 하셨다. 특히 캄보디아에 한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만큼 로사가 한국어를 잘 배워 한국인들을 상대로 가이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실 정도로, 자신이 성공한 직업을 아이들 또한 뒤를 이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로사와 부타네 부모님 모두 아이들의 교육열이 상당했지만, 부타네 부모님은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아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무리해서라도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계셨고, 로사네 부모님은 자신들의 성공한 삶을 자식들이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셨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내가 프놈프라움마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순전히 나의 '오만' 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탁 트인 우물가에서 샤워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사람들이 다보는데서 샤워하지? 하며 이해되지 않던 것 조차 내가 직접 이곳에 살며 샤워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것' 이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봤을 때 프놈프라움사람들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의 편견이란 걸 알게 되었다. 이 곳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최선을 다해 깨끗이 청소하며 살고 있었고 우리가 사는 한국의 집과 환경만 다를 뿐 사람사는 곳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마을' 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프놈프라움마을' 에 대해 조금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4개월이 지난 지금 드디어 내가 이 마을에 녹아들고 있구나를 느꼈다. 부타야 로사야 고마워!

3. 홈스테이 - 민기단원

홈스테이 가정: 따, 켜잉

홈스테이 기간: 2012년 12월 26일 ~ 28일 2박 3일

살라아띠 축구반에서 함께하는 아이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첫날엔 따 집에 갔다. 부모님과 7명의 형제가 사는 집인데 건기가 되면서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 태국 국경으로 부모님과 5명의 형제가 일하러 떠난 상태여서 따와 만형 따의 밖에 없어서 넓은 집이 쓸렁해 보였다. 집도 산 것이 아니라 빌린 것 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안 계셔 아이들이 밥을 잘해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힘든 시기임에도 아이들은 어느 때 보다 나를 밝게 맞이해주었다. 사운 망고를 같이 까먹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모기장을 쳐주더니 나를 재운다. 9시 밖에 안됐는데...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화였다. 전기가 귀하니 밤늦게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다음날 5시에 일어나니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 투성이였다. 모기장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있었다. 온몸을 긁으며 나무장작에 불을 때서 내가 가지고 온 진라면을 끓였다. 아이들 아침에 학교가는데 밥이라도 먹일려고. 그런데 다 먹고 나서 학교를 안 가길래 물어보니 오후에 간다.



→ 따네집 전경



→ 켜잉네집 안 모습

따 집을 뒤로 하고 센터 일이 끝난 오후에 껀잉 집으로 갔다. 껀잉 집은 센터 바로 정문에 있다. 가기 전에 노부야 집 앞의 탁 트인 수돗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팬티만 입고 샤워를 했다. 매일 센터 주변 사람들 샤워 하는 것만 보다가 내가 직접 해보니 민망하기도 하면서 할 만하다는 생각도 했다. 샤워를 하고 껀잉 집으로 돌아가 껀잉, 여동생 쩡 막내 쩡와 함께 저녁 늦게까지 사진을 찍으며 과자를 먹으며 놀았다. 아버지가 일을 하러나가 밤 늦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지 않고 일찍 자기로 했다. 어머님이 가장 굶은 매트릭스와 모기장을 확실히 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 보내면서 홈스테이를 마무리 하였다. 평소 마냥 밝고 어린 아이들이인 줄만 알았는데 같이 지내보니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동생들을 잘 챙기고 이야기를 해보니 힘든 일도 많이 이겨내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었다. 내가 지내는 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그곳에선 일상이였다. 내가 평소 가졌던 선입견을 부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더욱 마을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3탄

민기의 친구

쑥멘, 스레이코잇, 항토안



- 센터에서 밥을 먹기 위해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미인3 총사에게 다가가 꼬발 스마 쑹쑹 쑹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불러주면서 친해졌다. 이후에 맨날 빙뽀로 웨인(웨인 오빠)이라 부르며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처음에는 오빠소리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일하는데 자꾸 놀자고 괴롭혀서(?) 쑹쑹 피곤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줄려고 인형, 연필, 사탕, 꽃을 항상 나에게 준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있다고 해도 항상 무엇이든지 줄려고 한다.(안 받으면 배짐) 나는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다짐한다. 내가 더 웃어주고 더 이름 불러주고 더 이쁘다고 말해주고 눈 마주쳐야지!!

용석이의 친구 또로 (5세)



- 어느 날 일요일부터 우연히 눈에 띄기 시작한 아이이다. 매일 ‘록끄루 썸낭(썸낭 선생님)’ 하며 나에게 안기는 아이. 처음에는 흰 피부와 오동통한 살, 그리고 개구진 얼굴 때문에 유복한 가정에서 지내는 아이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편견이었을 뿐. 다른 집처럼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가정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옷에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닐때가 많지만 언제나 나를 반갑게 부르고 맞아주는 아이. 그리고 내가 일을 할때면 고사리 손으로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친구이다.

결의 친구 마이마이(8세)



- 지난 9월, 다일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아동결연’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참관하러 갔다가 그날의 결연 대상인 ‘마이마이’ 를 만나게 되었다. 이 아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잘하는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마이마이의 대답은 “설거지!” 였다. 설거지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좀 더 아이다운 특기가 없냐고 묻자 “동생 돌보기!” 를 외치며 또다시 우리가 왜 웃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던 마이마이. 조금은 독특한 특기로 인해 나에게 가장 친해지고 싶은 아이로 자리잡았으나 워낙 시끄해 인사를 해도 한번 쳐다보고 훑 지나가버리던 아이였다.

시간이 흘러 12월 중순쯤, 갑자기 쌀라아띠 한국어수업을 하는 교실에 찾아와 들어오라해도 들어오지 않고 1시간 동안 문앞에 서서 수업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에 들어와 자기도 배우고 싶다며 한국어교실의 초연소답지않은 성실함과 당당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인사도 안하던 마이마이가 이제는 “넉끄루 깐냐~!(깐냐 선생님)” 하고 부르며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하는 요즘은 내가 정말 이 아이와 가까워졌구나를 느낀다.

지훈이의 친구 깐냐 (18세)



- 처음 밥퍼에서 나에게 늘 날카로운 눈초리를 나를 바라보던 깐냐

그런 깐냐가 어느 날 와서 '십자수 수업 몇 시야?'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깐냐가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었다며 주변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다.

십자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는 깐냐. 깐냐는 현재 나의 뒤를 이어 내가 한국에 가고 나서도 십자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예비선생님이다. 따로 시간을 내 수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법도 하지만, 흔쾌히 알겠어! 라고 이야기 해 준 깐냐.

깐냐와 오랫동안 이야기 하다보니 처음 깐냐가 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하는 쑥스러움 많이 타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깐냐는 밥퍼 봉사자 중에 제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난 친구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내 친구

처음 친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깐냐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보면 자연스럽게 의자를 찾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수업 시간이 되면 늘 배고픈 나를 위해(....) 집에서 과일, 과자 같은 것도 곧잘 가져와 시크하게 '이거 먹을까?' 하는 깐냐 덕분에 내가 모르던 과일과 과자도 많이 알게 되었다.

개인 에세이

고용석 단원

1. 이것저것 힘든 12월이었다. 나에게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련(멘붕)은 역시 4개월 차에 오게 되었다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이였다.
2. 12월에는 연말 + 크리스마스 덕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선물을 줄때마다 선물을 받은 아이가 기뻐줬다 하는 생각보다는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때문에 느껴지는 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벤트를 할때마다 정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게 정말 쉬운일이 아닐뿐더러 완벽히 했다고 생각될때에도 예외는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3. 마을 지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프놈프라움마을 깊숙히까지 다니면서 느껴지는게 많았다. 센터 앞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집들. 농업, 어업 빼고는 할게 별로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 형편도 좋지 않다. 그것이 어찌면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생각이 난다. 가끔씩 온몸에 시벌겅게 멍이 들어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보며 가정폭력이 빈번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좋은 상황이 되물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도 생긴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할때는 정말 힘들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정말 작은 일에 불과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고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한명을 도와주더라도 그 한명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보람찬 생각이 나기도한다.

한결 단원

빈민국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선 그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 파견하면 된다. 그런데 왜 '라운아띠' 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단체는 전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생들, 그것도 한 팀에 남녀 성별까지 고려해가며 '팀' 으로 보내는 걸까? 왜 우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원활동' 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을 정의할까?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라운아띠' 라는 그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보게 되었다.

애초부터 라운아띠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기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루하루 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의 흐트러짐과 회복을 통해 '공동체' 를 배우는 우리들을 위한 활동이었다. 이곳의 '아이들' 을 위해 라는 포장을 걷어버리고 속살을 들여다보니 '팀' 과

'오지' 라는 장치가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지만,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할 큰 깨달음과 성숙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서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마음을 닫고 통보하기보다, 우리가 공동체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과 내 상처보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힘들지만 다시 마음을 열어 대화를, 그리고 이 난관을 극복해야한다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지가 한 순간에 적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적은 언제든지 다시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때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 지금 그 상대가 적이다 동지다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 그리고 한번쯤은 진지하게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

'나는 누구의 적이었던 적은 없는지'

공동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배려' 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철없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12월이었다.

조민기 단원

이제 거의 한 달을 남겨두면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지 즐겁고 후회 없이 캄보디아를 느끼고 오자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자고 라운아띠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캄보디아에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언어에 힘들기도 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기억이 많이 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다. 또 이러한 즐겁고 행복한 일상과 이별을 준비해야하는 것도,,, 라운아띠로서 왜 이곳에 왔는지. 지속가능성, 국제 개발, 교육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나누지 못한 것이... 그냥 너무 이곳에서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내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고 모든지 즐겁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 만나자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그냥 단순한 추억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라운아띠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남은 한 달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비웠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박지훈 단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요즘이다. 사실 아직도 내가 곧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냥 방학 때문에 부쩍 봉사자가 많아져 피곤하고, 정신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문득 아이들이 나에게 '지훈, 너 언제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이상해지기도 한다. 특히 평소 마음을 많이 줬던 네악씨가 내가 한 달 뒤에 간다는 것을 말하자 '너 그냥 지금가! 지금' 이렇게 말하더니 5분 뒤에 다시 '그럼 한국에 갔다가 언제 올 거야? 곧 올 거지? 너 곧 올 거지? 그렇지?' 라고 계속 물어보는 데 거기에 어떤 대답도 못 해준다는 사실에 네악씨에게 미안했다. 여기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많은 봉사자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봉사자에게 마음을 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괜시리 내가 미안해졌다.

이제야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친해지기 힘들었던 아이들과도 몇 마디씩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서 나를 놀리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내심 기뻐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 아이들에게 괜스레 더 주고 싶고,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수업을 늘렸는데 앞으로 2주 후면 중단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텐데...그냥 떠나기 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졌다.

아! 방학과 동시에 많아진 봉사단원 덕분에 뜯레샵과 앙코르와트도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가이드도 해보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했다, 허허

그리고 요즘 센터에서 정신이 없어 집에만 가면 씻고 바로 기절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자전거로 센터가기 프로젝트는 조금 주춤하지만 사기를 충전해서 자전거로 다시 센터도 다니고, 맛있는 케익 한 판 사서 다 먹고 그래야지!

요즘 먹는 게 남는거다라는 신조에 너무 충실한 감이 있지만!!! 남은 날 동안 더 열심히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9기가 다 선발되었다는 이야기에 왜 이리 왠지 모를...섭섭함이...

여하튼 한국에 가서 빨리 9기도 보고, 참치찌개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든다. 요즘 나는 좀 이상해졌다.

사진전









